



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 한훈 차관, 충남 홍성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방문
-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청취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주)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한훈 차관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중 농협 등과 함께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성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현황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235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일반현황

-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주)성우 / 대표이사 : 이도현
 - * 고용인원(6명) : 운영총괄1, 시설/데이터2, 운송부1, 관리부2 (원천마을 주민 3명 포함)
- 위치 및 시설면적 :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102-1외 / 13,484m²
- 처리용량: 110톤/일(돼지분뇨, 음폐수)
 - 메탄가스 에너지화(5,500톤, 3기), 액비저장조 12,560톤, 발전설비 430kWh

□ 운영현황

- 위탁농가: 결성면 등 26개 양돈농가
- 반입량('23년): 37,756톤/年
 - * 반입수수료 : 35~40천원/톤
- 바이오가스 생산량('23년): 1,083MkW(발전총량 1,103MkW/연간)
 - * 일평균 3,022kW 전기생산으로 약 432호 공급 가능(홍성 4인가구 7kWh/일 사용)

**에너지화시설 전경****메탄가스 발효조**